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우주 18

별과 생명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화성관측에서 화성표면에 긴 줄무늬가 존재하며 특히 나란한 줄무늬가 많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물이 귀한 화성에서 화성이 극 북으로부터 적도 쪽으로 물을 끌어 들여 농사를 짓는 관계수로 보고 '카날'이라 불렀다. 이러한 주장에는 길이 수천km나 되는 운하를 많이 건설할 정도로 우리보다 훨씬 더 진화된 지적 생명체가 화성에 있다는 믿음이 들어 있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1898년에 영국의 H.G. 웰스는 '우주 전쟁'이란 소설을 썼고, 1938년 미국에서는 이것을 극화해 라디오로 전국에 방송해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도록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대형 망원경에 의한 관측에서 '카날의 존재'는 부정됐지만, 화성 생명체의 존재여부는 계속 큰 관심이 되어오고 있다.

1862년 파스퇴르는 생명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오파린은 유기물의 합성에서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는 자연발생설을 주장했다. 1953년 밀러와 유레이는 암모니아, 메탄, 수소, 수증기 등을 혼합한 상태에서 강한 전기 방전을 일으킴으로써 생명 합성에 중요한 유기 화합물인 아미노산 등을 만들어 냈으며 오파린의 이론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먼 과거에 지구 대기는 암모니아, 메탄, 수소, 수증기 등을 포함한 환원대기였고, 여기에 강한 번개가 치면서 대기 중에 유기화합물을 생성시켰고, 이것이 비와 함께 땅에 떨어져 내린 후 따뜻한 물가에서 다른 무기물과 결합하여 중합체를 이루면서 생명의 씨앗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환원대기설이다. 그러나 초기 지구형성 시기에 일어난 수많은 운석과 혜성 충돌을 고려할 때 지상에 환원대기의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제시됐다. 뿐만 아니라 1972년 호주 머치슨 지방에 떨어진 운석을 분석한

결과 16종의 아미노산이 검출됐고 이 중 5개는 지상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됐다. 그리고 성간물질의 전파관측에서 60종 이상의 유기화합물이 발견됐다. 이러한 사실들은 생명현상은 우주에서 보편적 현상임을 보이는 증거들이다. 그러면 지상의 생명의 씨앗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왔는가? 호랍시대에 이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물, 불, 흙, 바람으로 보았고, 이러한 생각이 계속 이어오면서 지상계의 생명현상도 이런 4대 요소로 이뤄졌다고 믿어 왔다. 만약 그렇다면 인간

결과 16종의 아미노산이 검출됐고 이 중 5개는 지상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됐다. 그리고 성간물질의 전파관측에서 60종 이상의 유기화합물이 발견됐다. 이러한 사실들은 생명현상은 우주에서 보편적 현상임을 보이는 증거들이다.

그러면 지상의 생명의 씨앗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왔는가? 호랍시대에 이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물, 불, 흙, 바람으로 보았고, 이러한 생각이 계속 이어오면서 지상계의 생명현상도 이런 4대 요소로 이뤄졌다고 믿어 왔다. 만약 그렇다면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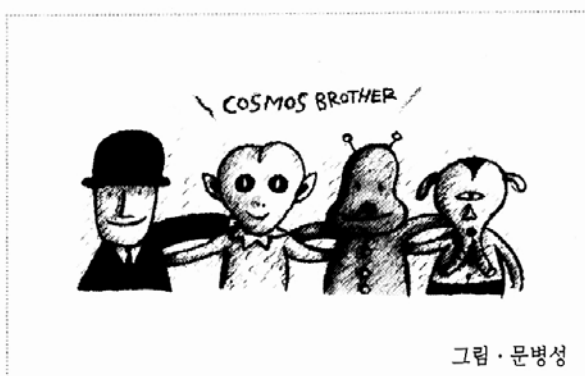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인간 우주문명체의 하나

새벽별보고 깨우친 불법
세간 어디에나 적용되며
우주 곳곳에 부처 존재

의 구성 성분은 지구 전체의 구성 성분이나 또는 지구 대기의 구성 성분과 같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의 구성 성분은 태양이나 별, 성간 물질의 성분과 매우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지상 생명의 씨앗은 지구가 형성된 후 40억 년 전부터 미행성에 속하는 수많은 혜성이나 운석들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물과 유기화합물을 제공해주는 과정에서 전달

지상에 생명체가 태어났다는 것이며, 이 이론을 외계 유인설이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주 내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고, 이 중에는 우리 인간보다 더 진화된 생명체도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어 태양과 비슷한 별 주위에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는 행성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며, 또 고도로 진화된 지적 생명체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1975년에는 미항공우주국 주관으로 외계 지적생명체 탐사계획을 수립했고, 1995년부터는 세계적 민간단체가 '불사조 프로젝트'

트'라 부르는 외계 생명체 탐사계획을 세워 관측을 계속하고 있다. 더욱이 1990년 중반부터는 별 주위를 도는 행성들을 관측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30개 이상의 외계 행성이 발견됐다. 이들 중에는 진화된 지적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외계 생명체의 발견은 왜 중요한가? 첫째 우리 이웃인 현재 지구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생명현상의 보편성을 확인하고, 둘째 폴 데이비스의 말처럼 과학이 물질문명의 발전이란 미명 아래 인간에게서 악태한 존엄성을 인간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그리고 지상에 규한 우주론적 인간원리는 우주론적 문명체 원리로 확장될 것이며, 또한 세존계서 새벽별을 보고 깨친 것처럼 불법은 우주 어디에나 존재하며 그리고 부처도 이상 더 지구인만의 부처가 아니라 우주적 부처로서 우주 곳곳에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깨우치게 될 것이다.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앞으로 1년간 60회에 걸쳐 <임제 록>을 바탕으로 하여 올바른 선공부 예로 이끄는 가르침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국 당(唐)나라 시대의 임제의원(臨濟義玄; ?-867)과 그의 가르침을 기록한 <임제록(臨濟錄)>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들을 소개하는 구차한 이야기를 뒤집어 하지 않는다. 다만 <임제록>이 선공부(禪功夫)의 가장 뛰어난 지침서로서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 받아왔다는 사실만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한 뜻이 무엇이고 물었는데, 임제의 묻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황벽은 몽둥이를 들어 임제를 때렸다. 세 번을 이렇게 물어서 세 번 모두 두들겨 맞은 임제는, '왜 묻는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때리기만 하는가' 하고 의아하여 기고 불만스러워 한다. 결국 임제는 때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①
불법에 특별한 것은 없다

벽이 몽둥이를 휘두른 뜻을 알아차린 임제의 첫마디는, '원래 황벽의 불법에 특별한 것은 없단!'이라는 감언이었다. 불법의 분명한 뜻을 물었는데, 왜 황벽은 묻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마디 말도 없이 몽둥이를 휘둘러서 임제



김태완 부신대 강사 · 철학

마음에서 직접 체험하고 확인하여 밝힐 수 있을 뿐이다. 말이나 생각은 이미 이름과 뜻으로 고정된 상(相)이나 살아 있는 마음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다. 직접적인 것은 살아 움직이는 마음

가진 다른 물건이다. 의식은 말과 생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모든 대상 사물은 말과 생각 속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마음도 말과 생각 속에서 마음이라는 이름과 뜻으로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실제 살아 있는 마음 그대로는 오히려 말과 생각에 가리어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범부의 상황이다. 이 경우 살아 있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려면, 우선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인 말과 생각을 치워야 한다. 선에 입문하려면 반드시 이 관문을 거쳐야만 한다. 그런데 말과 생각을 중단시켜서 내려놓게 만드는 수단으로 휘두른 방망이가 또 다른 역할도 하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 움직이는 마음을 직접 바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티끌만큼의 차이도 없다. 몽둥이를 휘두른 것이 마음을 바로 나타낸다는 이 말에 즉각 결합되어서 달리 의식이 없어져 비로소 선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으며, '원래 불법에 특별한 것은 없다'고 하는 임제의 말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http://www.mindfree.net/

마음으로 체험 · 확인 · 밝히는 것

의 말을 막았을까? 황벽의 이러한 행동이 선문(禪門)으로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황벽의 몽둥이가 임제의 입을 막아버렸다는 것이다. 불법의 분명한 뜻은 말이나 생각으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다. 불법은 오직

그대로가 되어야 한다. 물론 지금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마음에서 보면 말이나 생각도 살아 움직이는 마음 밖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익혀온 습관적인 의식에 따르면 말과 생각과 마음은 각각 다른 이름에 따라 다른 모양을

임제는 황벽회운(黃檗希運)의 문하에서 공부하다가 황벽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았다. 임제가 깨달음에 이르는 이야기는 선공부하는 이들에게 여러 면으로 좋은 암시를 주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한다. 임제는 황벽의 문하에서 한 번 팔지 않고 오로지 정진하고 있었는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좌파의 권유로 방장 스님인 황벽을 찾아 법을 묻게 된다. 임제는 황벽에게 '불법(佛法)의 분명

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황벽과는 인연이 없다고 여기며 황벽을 떠난다. 그리하여 고안(高安)의 대우(大鵬)를 만나 황벽이 몽둥이로 때린 것이 바로 임제의 질문에 대한 가장 친절한 대답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임제는 황벽의 뜻을 알아차린다. 황



외모 치중 병든 소비문화

'명품바람'이 청소년들의 세계에서도 거세다.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의 추세는 거의 '광풍'에 가깝다. 과거 같으면 일부 부유 계층이 주고객층이었으나 이제는 중 · 고등학교생은 물론, 심지어 초등학교생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

명품을 선호하고 집착하는 풍토도 문제지만, 고급 브랜드 구입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증폭된다. 방화내내 아르바이트도 마다하지 않고 돈을 벌며 명품을 꼭 사고 마는 '자립적 열성파'에서부터, 뜻밖의 친구들과 '명품계'까지 만들어 한 사람에게 돈을 몰아주는 '의기투합형', 이런 방법조차 여의치 않으면 가짜라도 걸치고 보는 '눈속임형'에까지 그야말로 가지각색으로 명품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들이 명품 구입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이유는 '있어 보이려고 하는' 저급한 자기 현시욕에 있다. 여기에서 유행만을 추구하는 소비문화,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는 대중매체가 가세함으로써 하나의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내면을 가꾸기보다는 외적인 치장에 혈안이 되고 있는 요즘 사회의 뼈대어린 단면이다.

▶▶▶ 탐욕은 온갖 괴로움의 근본이요 욕바라미의 큰 장애요서, 능히 보리심을 태워 없앤다. <육바라미경>
▶▶▶ 재물을 얻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하고 아껴 지켜 보호하고 감추어 둔다. 그러나 그들은 곧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번민하니, 마음에는 곧 어리석음이 생긴다. <중아함교원경>
▶▶▶ 의복과 음식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선정에 들어 그것을 알고 족한 줄을 알아, 최소한의 것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법구경>
▶▶▶ 욕망의 그물이 씌워지고, 애욕의 덮개가 덮이고, 어리석음이 마음을 격박한다면, 물고기가 어부의 손에 들어온 것이 나다를 바알다. <법집요승경>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The main statue and attendant Buddhas 본존불과 협시불
관세음보살 Avalokitesvara (compassion Bodhisattva)
지장보살 Ksitigarbha (Bodhisattva of suffering) 대세지보살 Mahāsthāmaprāpta (Bodhisattva of power)
The main hall generally enshrines three Buddhas. The main statues is in the center. Left and right of the main statue, there are attendant Buddhas. The main hall is called 'Daeung-jeon' or 'Daeungbo-jeon', the central figure is Sakyamuni, the historical Buddha and attendant Buddhas are Manjusri and Samantabhadra. Manjusri Bodhisattva is the symbol of wisdom. Samantabhadra Bodhisattva is the symbol of action (or practice). Sakyamuni is usually flanked by Avalokitesvara and Ksitigarbha. If Amitābha Buddha is main statue, the attendant Buddhas are Avalokitesvara and Mahāsthāmaprāpta.
대웅전에는 보통 세 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양 옆에 협시불이 있다. 대웅전이나 대웅보전의 주불은 보통 석가모니부처이고 협시불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보현보살은 실천을 상징한다. 석가모니 옆엔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모셔진다. 주불이 아미타부처일 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협시불로 모셔진다.

제4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4th Academic Award of Jingak Order
대한불교진각종은 불교관련 연구 특히 밀교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고자 '진각논문대상'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나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 주제: 불교일반 (불교관련 응용분야 포함)
밀교일반 (밀교관련 응용분야 포함)
진각종 교학 (진각종교학 및 외당사상 관련)
▶ 응모자격: 제한 없음
▶ 전형방법: 인적사항 1부 및 논문계획서 1부 (소정 양식)
▶ 전형일정: 접수마감 - 2002년 4월 15일(월)
당선작 발표 - 5월 6일 발표 예정
당선논문발표회 - 11월 22일(금) 예정
▶ 당선작 및 상금: 불교분야 3편 · 밀교분야 3편, 진각종 교학 2편, 각 200만원
▶ 접수처: 우 136-865 서울시 성북구 마얼곡 2동 22.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중앙연구실
인터넷 홈페이지 - www.jingak.or.kr
e-mail : jaemi17@freechal.com
전화 (02) 913-0133, 0134 / 팩스 (02) 913-0135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안에 다른 논문 응모제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자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주최: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참선교육
참선은 사무나 하나 - 1/1
시간복, 건강복, 재복 등 세가지를 갖춘 후에 대심상, 대분심, 대의정이 받쳐주어야 화두일념으로 확절대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으면서도 분명한 참선교육 본 교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권 참선의 목적(참선의 정의, 참선의 역사), 종류(범부선, 외도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지세(지세의 종류, 참선 전후의 운동, 호흡하는 법, 참선 시 세부적인 요령, 참선과 음식)
2권 외도의 중요성, 외도의 정의, 외도 참구법, 외도의 손뼉과 單提, 외도의 단계, 참선과 법로, 선법문 의식, 법거량법도, 사반주, 동념즉과 정념즉과, 임계의 법로, 선문답하는 법, 선사 법문, 조사경맥, 재미있는 참선특강(참선은 아무나이나,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 참선과 주파수 등)
3권 선사 백문백답
기준에 나와 있는 禪 서적과 완전히 다른 조계종 수선회 참선교육 교재 1, 2, 3권이 3월에 출판됩니다. 먼저 인쇄해두고 판매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는 교재가 때문에 꼭 필요한 분에게만 보급하기 위하여 300질 한정판으로 제작하오니 구입에 뜻이 있는 분은 미리 송금한 후 전화주시면 3월에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대량 제작 후 불교서적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격 1질(3권) 3만원(국민은행 023-01-0565-179 도서출판)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전화 732-5960, 736-4339
※ 56기 참선교육: 2002년 3월 12일(화) ~ 4월 9일(화) - 5회
대한불교조계종 修禪會

중앙승가대 18회(96학번)동문모임
귀의 삼보아고
어느 듯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기운이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이때에 동문수학하던 많은 도반스님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방에서 수행정진과 교단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줄 알지만 졸업 후 첫 모임을 개최하오니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건
▶ 모교 후원에 관한 건
▶ 차기 임원진 선출에 관한 건
▶ 기타
◇ 일시: 불기 2546년 (2002) 3월 19일
화요일 오후 4시
◇ 장소: 강릉 경포산장콘도 ☎ 033-644-7123
◇ 문의: 033)661-5878, 011)320-5070
중앙승가대학교 18회 96학번
회장 현종 합장